파키스탄 칼라샤 지역의 무형유산을 통해 보는 유산교육 촉진

지아수딘 피르, 미자 우바이드
THAAP

칼라샤(Kalasha) 공동체 소개

칼라샤는 파키스탄 북서부 치트랄구의 무무렛, 비리우, 룩무 계곡에 거주하는 원주민 공동체이다. 2015년 11월, 비정부기구 THAAP는 칼라샤 공동체의 무형유산에 관해 공동체 기반 목록작성에 착수했다. THAPP는 2003년 협약에 따라 파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의 인가를 받은 비정부기구이다. 파키스탄 전체 인구 약 2억2,100만 명 중에서 칼라샤인은 4,000여 명에 불과하여 칼라샤 공동체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인구수가 적고 타 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 중 하나이다.

칼라샤 공동체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치트랄 주재관으로 복무한 존 비둘프 소령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겼다. 1878년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다.

> "지도에서 치트랄, 아프가니스탄, 힌두쿠시산맥 사이에 카피리스탄이라는 미지의 국가의 거대한 영토가 보이는데 이곳 주민에 관하여 굉장히 터무니없는 추측이 난무한다".

이 말은 칼라샤인에 관한 추측이 낯선 현상이 아님을 강조한다. 칼라샤인의 종교와 민족적 기원에 관해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 군대 탈영병의 후손이라는 설부터, 지역의 토착민이라는 주장까지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며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다. 그러나 칼라샤 공동체의 기본적인 지리적 특징은 계곡이 있고 그 중심으로 강이 흐른다는 점이다. 이 지역은 문화뿐 아니라 생물학적 다양성도 지니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칼라샤 공동체와 이슬람 공동체는 지금도 토지를 활용하여 생계를 이어가기에 농업과 축산업이 생존경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역의 주요 동식물로는 부탄 소나무(pinus wallichiana), 칠고자 소나무(pinus gerardiana), 향나무, 히말라야 삼나무(cedrus deodara), 털가시나무(quercus baloot)가 있다. 과일은 오디, 사과, 배, 복숭아가 많이 생산되어 주로 소비하며, 견과류가 지역의 특산품이다. 고지대 초원에서는 꿀과 다양한 야생버섯(morchella esculenta, morchella vulgaris, morchella deliciosa)이 흔하게 발견된다.

THAAP은 스위스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유네스코와 함께 5개 범주 45개 무형유산에 관해 포괄적 기록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또한 공동체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전통 놀이와 경기, 전통 의학, 농경 풍습 등의 분야를 추가했다.

이 기록을 실제 적용한 프로그램 중에는 파키스탄 최초의 무형유산 온라인 목록이 있다. 이 목록은 수리 자젝(Suri Jagek)의 등재 신청서 작성과 등재 결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리 자젝은 태양, 달, 별, 그림자를 관찰하는 기상·천문 관습으로 2018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었다.[3)]

전통 교육 및 향후 과제

앞서 설명했듯이, 과거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칼라샤인에 관하여 최종적이고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어렵다. 전통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지식 보급은 전통에 따라 지정된 공간에서 구전으로 이루어졌다. 소년은 제단이, 소녀는 출산 장소인 바샬리가 그러한 공간이었다. 가정과 가정의 어른은 어린아이가 실용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지식의 '보고'이다. 이 지역에 정규 교육 제도가 도입되면서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교육을 받은' 칼라샤 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변화는 칼라샤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는 칼라샤의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 THAAP는 스위스대사관의 후원을 받고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칼라샤 정체성 강화를 위한 유산 기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고 자료를 개발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정의에 따르면 유산교육은 "학생이 유산 자원에 관해 배우는 교육학적 과정"을 가리킨다. 유산교육은 학생이 과거와 현재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련이 깊은 특수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한 현재 정체성의 발달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과정을 강조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단일화된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초등 교육의 콘텐츠, 교육과정, 교수법 때문에 칼라샤의 정체성이 약화하였다. 그러한 예로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친 것이다. '이슬람 교리나 윤리'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지만 실제로는 훈련된 교사가 부족해서 학생들은 대부분 후자 대신 전자를 배웠다.

또한 칼라샤 학생만을 위한 학교가 흔치 않았다. 붐부렛에 세 곳, 룸부르에 두 곳, 비리르에는 한 곳이 있었다. 이 여섯 곳의 학교는 칼라샤 전체 학생을 수용하기에 부족했고, 따라서

3) 유네스코 무형유산 수리 자젝(태양 관측)은 지형학에 기반하여 태양, 달, 별을 관측하는 전통적인 기상 및 천문 관습이다. 해당 내용은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ich.unesco.org/en/USL/suri-jagek-observing-the-sun-traditional-meteorological-and-astronomical-practice-based-on-the-observation-of-the-sun-moon-and-stars-in-reference-to-the-local-topography-01381

대다수의 칼라샤 어린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여섯 학교 중 그리스 자원봉사자들이 설립하여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붐부렛의 칼라샤 두르 학교 한 곳에서만 수업에서 칼라샤어로 학생들을 지도했다. 다른 학교에서는 지역 공통어인 코와르어로 수업을 했다.

세 번째 과제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과거에 시도한 적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칼라샤 학문' 과목이 국가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따라서 학생이 인생에서 '발전'하고 대학 입학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에 시간을 써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정신에 관념적으로 내재된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항 대립한다. 이에 따라, 선행 개입은 과외 활동으로 문화 활동의 지속적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었다.

칼라샤 공동체의 유산교육 현황

지난 10여 년간 정규 과정에 의한 지식 보급이 발전하면서 칼라샤 청년 중 99% 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결과 이슬람 공동체보다 칼라샤 공동체에서 비교적 높은 문해율이 나타났지만, 불행히도 칼라샤인의 '교육'과 '문해율'은 문화적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들이 유용한 지식을 배워야 하는 시기가 되면 학교에 가요"라는 연장자 크리슈나 모식의 말은 다른 칼라샤 공동체 구성원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이 글에서는 주류교육을 소외된 공동체에서 시행할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모순을 설명하고 그 해결 방법에 관한 사례를 함께 제시한다.

한 가지 전략은 정부가 승인한 기존 교육과정의 일부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산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정규 교육의 변방으로 전락하지 않을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거에 추진한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유산교육이 학교의 '과외' 활동이 되면서 지속되지 못했다. 과외 활동을 통한 문화교육은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교사와 연장자의 자율활동으로 제한되고 방과 후 시간으로 미뤄지면서 결국 초등 교육 이해당사자가 헌신하는 수준의 교육으로 축소되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실용적 발전과 문화 발전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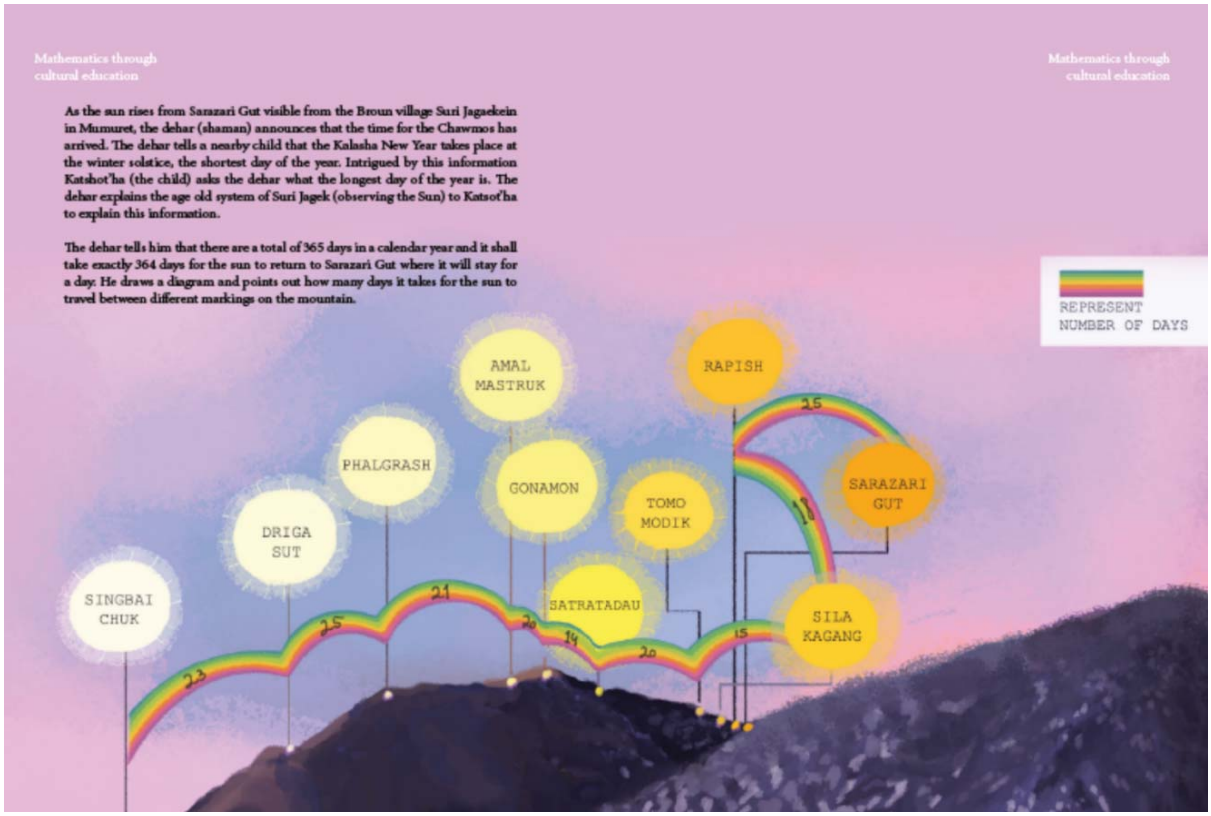
개발한 교육 콘텐츠 사례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THAAP는 학생들이 이미 배운 수학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와 접목시켜 기초 수준의 수학 질문을 개발했다.

사례 I

수리 자젝은 태양, 달, 별, 그림자를 관찰하는 기상·천문 관습으로 2018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긴급보호목록으로 지정되었다. 관측소에서 태양을 관찰하면 매일 태양이 산 위로 떠 오르는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사실 태양은 오늘 떠오른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확히 365일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일출 위치와 관련된 여러 지점마다 정의된 명칭이 있으며, 태양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산식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모두 합하면 365일이다. 이 기초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오래된 관습을 소개하고 수학 문제를 풀게 한다. 교과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사례 II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을 가르칠 때 전통 측량단위를 사용한 수학 문제가 제시되었다. 라쉬 지릭(Rhash Giirik)은 곡식을 세어 저장하는 오랜 관습이다. 세 가지 정해진 크기의 바구니가 측량에 사용되고 이와 관련해서 곱셈과 나눗셈 문제가 제시된다. 교과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사례 III

언어는 본질적으로 현지 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구전 이야기는 기록되고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가 영어와 우르두어로 번역되어 학생들에게 이해력 연습문제로 제공된다.

교사들이 칼라샤어로 교과서를 직접 쓰고 영어로 번역했다. 이 작업은 공동체에서 수행했고 외부 기관은 제도적인 지원만을 제공했다.

COVID-19 대응

100여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휴교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 세계 학생 인구 중 거의 절반에 달하는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유네스코, 2020).[4] 그리고 전 세계 원주민 사회가 겪고 있는 교육 붕괴 상황은 같은 나라의 다른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심각하다.

칼라샤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4월부터 8월까지 정규 수업 시행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붐부렛의 칼라샤 두르 학교의 박타와르 샤 교정은 이렇게 말한다.

> "홈스쿨링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문제는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 수업 내용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어도 모르고 우르두 말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를 할 줄 알아도 읽고 쓸 줄을 모르고요."

칼라샤 계곡에 휴대전화가 부족하지는 않지만,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해서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점도 고민거리이다.

교과서의 일부 내용은 부모들에게 구두로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수리 자젝은 학생이 마을 어른으로부터 배우는 관습이어서, 수리 자젝을 배경으로 하는 수학 질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곡식 저장과 설화도 학생들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어쩌면 이 시간은 학교에 가지

4) UNESCO. 2020. COVID-19 Education Disruption and Response. Available online at: https://en.unesco.org/news/covid-19-educational-disruption-and-response

않아서 갖게 된 뜻밖의 행운일지도 모른다.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을 때, 전통 교육과 현대식 교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결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혁신적이고 칼라샤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유형이다. 결과는 효과적이다. 개발한 콘텐츠가 기존 교과과정에 적절하게 부합했고 추가 재원이 들지 않았다. 하지만 칼라샤인을 위한 칼라샤 학문을 교과과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정책이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주장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